

4) 동종(銅鐘)

(1) 선암사 응향각(凝香閣) 동종

이 종신(鐘身)에는 “옹정팔년경술(雍正八年庚戌) 사월일합평□□사(四月日咸平□□寺) 중중중백근(中鐘重百斤)”이라는 명문이 있으므로 정확한 조성시기를 알 수 있다. 옹정팔년경술은 1730년(영조 6)에 해당한다. 이 종은 상·하대에 당초문 등의 문양이 장식되고 4좌의 유곽(乳廓)과 보살입상이 교호로 배치되고 정상에는 음통(音筒)과 용뉴(龍鈕)가 장식되어 있다. 전체 높이 75cm, 상경(上徑) 33cm, 하경(下徑) 50cm의 중중(中鐘)이다.

(2) 선암사 진영당(眞影堂) 내 동종

현재 진영당 내에 보존하고 있으나 본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이 종신의 “순치십사년정유(順治十四年丁酉) 오월일주중(五月日鑄鐘) 전라남도보성군(全羅南道寶城郡) 지천봉산대원(地天鳳山大原) 사부도암중중(寺浮屠庵中鐘) 이백근입(二百斤入)”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1657년(효종 8)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동종은 하대에는 당초문과 연화문을 장식하고, 상대에는 ‘범’자를 가득히 돌렸다. 종신에는 4좌의 유곽과 보살입상을 교호로 배치하였으며, 정상에는 용뉴를 조각하여 용을 매달도록 하였고, 그 밑으로는 큼직한 복련을 돌려 장식하였다. 전체 높이 81cm, 상경 35cm, 하경 53cm의 중중이다.

(3) 선암사 칠전(七殿) 동종

달마전에 매달고 조석으로 타종하고 있다. 이 동종의 “건륭이년정사(乾隆二年丁巳二月日) 선암사중중(仙岩寺中鐘)”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1737년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동종은 상·하대를 생략하고 다만 상대부분 원좌 내에 ‘범’자를 배치하고 있다. 종신에는 4좌의 유곽과 보살입상을 교호로 배치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조석이 없다. 정상에는 용뉴를 조각하여 매달도록 되어 있다. 전체 높이 55cm, 상경 27cm, 하경 36cm의 중중이다.

(4) 선암사 오십전(五十殿) 중중

이 종은 현재 승방 안쪽에 걸어놓고 반종(飯鐘)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종신에 있는 “가경팔년계해(嘉慶八年癸亥) 사월일오십전중(四月日五十殿中) 종개조중구십근(鐘改造重九十斤)”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1803년(순조 3)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동종은 상·하대가 생략되고 상대부분에 큼직한 원좌 내의 ‘범’자를 네 군데에 배치해놓았다. 그리고 종신에는 4좌의 유곽과 보살입상을 교호로 배치하였는데, 용뉴를 ‘범’자 바로 밑에 배치하였다. 정상의 천판(天板)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고 큼직한 고리 하나를 붙여놓아 종을 매달도록 하였다. 전체 높이 54cm, 상경 32cm, 하경 46cm의 중중이다.

(5) 선암사 범종루(梵鐘樓) 동종

이 동종은 선암사의 대종(大鐘)으로 주조하여 종루에 매단 것으로 원위치가 현재의 위치이다. 이 종에는 “강희삼십구년경신사월(康熙三十九年庚辰四月) 전라남도순천부조(全羅南道順天府曹) 계산선암사대종(溪山仙岩寺大鐘) 개주중백근(改鑄重百斤)”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1700년(숙종 26)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동종은 상·하대를 생략하고 상대부분에 원좌 내의 범자를 돌려놓았다. 종신에는 4좌의

유곽과 보살입상을 교호로 배치하였으며, 정상에는 용뉴를 장식하여 종을 매달도록 하였다. 전체 높이 120cm, 상경 60cm, 하경 92cm의 대종이다.

(6) 선암사 응향각 내 금구(禁口)

이 금구의 뒷면에 “건륭오십오년(乾隆五十五年) 기유칠월일조성(己酉七月日造成)”이라는 명문으로 보아 1789년(정조 13)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범’자 이외에는 별다른 조식이 없는 전체 지름 1m의 대형 금구이다.

(7) 향림사 동종

이 동종은 구경 50.8cm, 전체 높이 84cm, 두께 48cm의 종으로서 단용과 음통으로 된 용뉴, 반구형 천판, 범자문 장식의 상대와 유곽, 4구의 보살입상 등을 갖고 있으나 하대와 당좌 등은 없다. 이 종의 보살입상은 머리에 두광과 보관을 갖고 긴 범의를 입었으나, 비교적 조잡한 수법이다. 그리고 전방 유곽의 좌측에 높이 21cm의 전패(殿牌)에는 “주상왕전하만세(主上王殿下萬勢)”의 7자가 양각되어 있다. 유곽과 보살입상의 아래쪽에 “건륭십일년병인사월일(乾隆十一年丙寅四月日) 순천선적사중종중백오십근(順天善積寺中鐘重百五十斤) … … 주종편수(鑄鐘片手) 금금철(金今喆)”의 명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종은 1746년(영조 22)에 선적사에서 주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송광사 감로암(甘露庵) 동종

『조선조후기 종목록』에 따르면 이 종의 용뉴는 단용이고, 천판은 반구형의 중국종 양식이며, 입장대(立狀帶)는 없다. 상대는 범문을 돌렸고, 빗살문양의 유곽은 4좌이며, 유곽과 유곽 사이에는 4구의 보살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 종의 유곽은 탁본한 결과 20×20cm의 정사각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곽대는 거친 빗살문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유곽 내에는 9(3×3)유를 배치하였으며, 각 유는 직경 3.6cm의 원형 10엽 연화 유좌(蓮花乳座) 위에 직경 9mm의 용기된 유두를 갖고 있다.

보살상은 유곽과 유곽 사이에 1좌씩 4좌가, 너비 12cm와 높이 26.5cm 크기로 배치되어 있으며, 각 보살은 머리에 보관과 두광을 갖추었고 합장하며 기원하고 있다. 이 종은 파손되어 전체를 볼 수 없었으나, 탁본에 나타난 조성연대는 1755년으로 밝혀졌다.

(9) 송광사 건륭명(乾隆銘) 동종

이 동종은 구경 44.6cm, 전체 높이 69.4cm, 두께 3.8cm의 소종(小鐘)으로서 쌍룡으로 된 용뉴, 상대 위치에 배치된 범자문과 종신을 구획하는 4개의 태조선(太條線)을 돌렸으며, 유곽과 보살 등은 모두 생략되었다. 종복(鐘腹)에는 “건륭을사순천송광사(乾隆乙巳順天松廣寺) 천자암중종백오십근(天子庵中鐘百五十斤)”이란 명문이 있어 1785년(정조 9)에 주성(鑄成)된 150근의 천자암 동종임을 알 수 있다.